

강진청자식기류 쓰기 편하게 만든다

강진군이 청자의 위상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벼우면서도 현대인의 생활과 조화를 이룬 청자식기류 개발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를 위해 군은 최근 관용인 청자 박물관, 개인 요업체 도예작가, 교수 등을 중심으로 청자식기류 경량화를 위한 추진연구단을 발족했다.

청자식기류 연구단은 윤태영 청자 박물관 연구실장, 김경진 개인요업체 대표이사, 강광복 성화대 교수, 정호진 도예연구소 연구원 등 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매달 1회 이상 만나 청자식기류의 문제점을 찾아 보완하게 된다.

무겁고 가격 비싸 소비자 외면

경량화 추진… 8월 축제때 첫 선

된다. 특히 경량화를 위해 고령토와 백토를 섞어 사용하는 배합비율을 조절하고, 그릇 두께를 얇게 만드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어 1차 완성된 제품은 오는 8월 8일부터 9일간 열리는 '제 37회 강진 청자 축제' 기간 중에 첫선을 보이기로 했다.

윤태영 연구실장은 "이번 작업을 통해

에서 사용하는 밥·국그릇 등 청자식기류가 그동안 백자 등 타자기류와 비교해 무겁고 투박한데다, 색상 등이 음식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 업주와 관광객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면서 "가격도 다른 식기류에 비해 비싸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아 경량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연구실장은 "이번 작업을 통해

청자가 일상생활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경우 강진청자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판로를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구단은 경량화된 청자식기류가 국내는 물론 세계인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소비자들의 선호도에 따라 양산체제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한편 강진지역에서 청자박물관을 비롯해 24개 개인요에서 청자식기류를 생산하고 있다.

/경진=남철희기자 choul@



통일쌀 경작지 모내기

영암군 농민회는 지난 25일 군농업 기술센터 하천부지 1만㎡에서 통일 쌀 경작지 모내기를 실시했다. 이곳에서 수확한 쌀은 전량 북한 동포에게 전달해 수확기 쌀값 하락과 쌀 재배농가 생산비 보장에 기여하게 된다.

〈영암군 제공〉

장흥군 재정조기집행 최우수

상금 1억 받아

함평군은 5천만원을 지급했다. 장흥군은 목표액 1천860억원 중 1천585억원을 집행해 85.2%의 집행률을 기록했으며 완도군은 2천269억원 중 1천539억원으로 67.8%, 함평군은 1천449억원 중 970억원으로 66.9%를 각각 기록했다.

전남도는 4월 말 현재 조기집행률에 따른 평가를 7조7천499억원의 63%인 4조8천764억원이 집행됨에 따라 도내 시·군별 평가를 통해 최우수 자치단체인 장흥군에 1억원, 우수 자치단체인 완도군에 7천만원, 참여자치단체인

제주도에는 1천237억원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4월 말 현재 조기집행률에 따른 평가를 7조7천499억원의 63%인 4조8천764억원이 집행됨에 따라 도내 시·군별 평가를 통해 최우수 자치단체인 장흥군에 1억원, 우수 자치단체인 완도군에 7천만원, 참여자치단체인

강진에 고로쇠 단지 조성

음천면 일대 9만여㎡

5년생 4천여그루 심어

강진군은 면(面) 전체가 친환경 지역인 음천면에 '고로쇠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26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역 특성을 살린 경제수종 식재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와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음천면 일대 9만여㎡에 고로쇠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지역은 친환경 농업특구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보호수종 식재가 필요한 데다 해발 300m 이상 산간 고지대로 고로쇠가 잘

자라는 지역이다.

군은 최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월곡리 일대에 5년생 고로쇠 4천여 그루를 심었으며 내년까지 40만여㎡에 2만여 그루의 고로쇠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고로쇠나무는 수령 10년생이며 수액을 채취할 수 있으며 수액은 숙취 제거, 신진대사 촉진 및 노폐물 제거, 성인병 예방, 피부미용 등에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군 관계자는 "음천 청정 고로쇠 조성단지 사업을 통해 고로쇠 수액 채취판매와 체험마을 조성 등 주민 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진=남철희기자 choul@

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해 현장감을 높였다.

정광호 군외파출소장은 "날로 각종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어 학부모와 어린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순찰 경찰차량을 이용해 어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교육

완도 군외파출소

완도군 일선 파출소가 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기초질서 순회교육을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완도경찰서(서장 김재석) 군외파출소는 최근 군외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생과 교사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여름철 교통사고 예방과 기초질서 교육을 실시했다.〈사진〉

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해 현장감을 높였다.

정광호 군외파출소장은 "날로 각종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어 학부모와 어린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순찰 경찰차량을 이용해 어린

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해 현장감을 높였다.

정광호 군외파출소장은 "날로 각

종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어 학부모와 어린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순찰 경찰차량을 이용해 어린

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해 현장감을 높였다.

정광호 군외파출소장은 "날로 각

종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어 학부모와 어린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순찰 경찰차량을 이용해 어린

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해 현장감을 높였다.

정광호 군외파출소장은 "날로 각

종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어 학부모와 어린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순찰 경찰차량을 이용해 어린

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해 현장감을 높였다.

정광호 군외파출소장은 "날로 각

종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어 학부모와 어린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순찰 경찰차량을 이용해 어린

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해 현장감을 높였다.

정광호 군외파출소장은 "날로 각

종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어 학부모와 어린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순찰 경찰차량을 이용해 어린

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해 현장감을 높였다.

정광호 군외파출소장은 "날로 각

종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어 학부모와 어린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순찰 경찰차량을 이용해 어린

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해 현장감을 높였다.

정광호 군외파출소장은 "날로 각

종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어 학부모와 어린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순찰 경찰차량을 이용해 어린

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해 현장감을 높였다.

정광호 군외파출소장은 "날로 각

종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어 학부모와 어린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순찰 경찰차량을 이용해 어린

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해 현장감을 높였다.

정광호 군외파출소장은 "날로 각

종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어 학부모와 어린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순찰 경찰차량을 이용해 어린

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해 현장감을 높였다.

정광호 군외파출소장은 "날로 각

종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어 학부모와 어린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순찰 경찰차량을 이용해 어린

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해 현장감을 높였다.

정광호 군외파출소장은 "날로 각

종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어 학부모와 어린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순찰 경찰차량을 이용해 어린

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해 현장감을 높였다.

정광호 군외파출소장은 "날로 각

종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어 학부모와 어린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순찰 경찰차량을 이용해 어린

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해 현장감을 높였다.

정광호 군외파출소장은 "날로 각

종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어 학부모와 어린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순찰 경찰차량을 이용해 어린

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해 현장감을 높였다.

정광호 군외파출소장은 "날로 각

종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어 학부모와 어린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순찰 경찰차량을 이용해 어린

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해 현장감을 높였다.

정광호 군외파출소장은 "날로 각

종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어 학부모와 어린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순찰 경찰차량을 이용해 어린

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해 현장감을 높였다.

정광호 군외파출소장은 "날로 각

종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어 학부모와 어린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순찰 경찰차량을 이용해 어린

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해 현장감을 높였다.

정광호 군외파출소장은 "날로 각

종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어 학부모와 어린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순찰 경찰차량을 이용해 어린

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해 현장감을 높였다.

정광호 군외파출소장은 "날로 각

종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어 학부모와 어린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순찰 경찰차량을 이용해 어린

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해 현장감을 높였다.

정광호 군외파출소장은 "날로 각

종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어 학부모와 어린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순찰 경찰차량을 이용해 어린